

2018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월간 리포트 모음

활동권역 : 베트남 하노이

제 출 자 : 손예운

번호	구분	내용
1	현지 동향	베트남 예술가와 무용 & 음악 캠프
2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 Behind the Eye 공연
3		'Into Thin Air2' 어플리케이션 개발
4		2013년부터 이어온 하노이 퀘스트페스티벌, 정부의 공연 비허가로 끝내 취소
5		공개 현대미술작품 전시회 "Art For You" 개최
6	기관 및 단체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NHÀ HÁT NHẠC VŨ KỊCH VIỆT NAM)
7		베트남국립가무악단(Nhà hát Ca, Múa, Nhạ Việ Nam)
8		VCCA
9		HBSO(Ho Chi Minh City Ballet and Symphony Orchestra)
10		아라베스크 무용단
11		봉센 극단 Bongsen Theater
12	공간	AgoHub
13		DEN
14	축제 및 행사	호이안 도자기 축제
15		베트남 전통 의상 공연 및 ASEAN 예술 교류 공연
16		Krossing Over Festival
17		Ca Tru Festival
18	인물	미즈키 엔도 (Mizuki Endo)

I. 현지 동향			
유형	공연	장르	현대예술
관련링크	https://vietnamnews.vn/life-style/462687/first-dance-and-music-camp-ends-in-ha-noi.html#s226W0mTE3gDyJPf.97		

<베트남 예술가와 무용 & 음악 캠프>

○ 내용:

독일문화원과 베트남국립무용대학의 주최로 '베트남 예술가와 무용 & 음악 캠프'가 지난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8명의 안무가와 무용가, 9명의 음악가 및 작곡가가 참여하는 쇼케이스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캠프의 진행을 맡은 독일 Heiner Goebbels는 독일 현대음악과 연극계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로, 'Ruhrtriennale' 예술제의 예술감독이다. 이들은 음악과 빛, 무대와 움직임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며 1주일간 Goebbels와 작업했으며 2개의 작품으로 성과물을 공유했다.

○ 현지 동향 분석:

여러 외국인 관계자들이 느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현재 베트남은 현대예술에 대한 흡수 속도가 몹시 빠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하노이·호치민을 비롯해 현재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음악가와 안무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완벽한 결과물이 아닌 30분 가량의 쇼케이스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음악가와 무용가들의 즉흥적이고 흥미로운 작업이 진행됐다.

음악가들은 전자음악 외에도 베트남 실생활에서 발견될 만한 생활용품을 활용해 소리를 쌓아갔고, 무용가들은 기둥에 매달리거나, 무대를 뛰어다니거나, 혹은 거대한 천을 두르고 가만히 서있는 등 움직이지 않고도 무대를 채우는 '비무용적' 무용 접근에 집중한 것이 눈에 띄었다. 조명과 무대 장비도 다양하게 활용해 천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이 움직이는 등 시각적 효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소리와 춤, 연출로 가득 메워진 극장은 베트남 아티스트들의 컨템퍼러리 공연예술에 대한 실험의 장이었다. 올해는 캠프로 대체되었지만 2019년 'Europe-Asia Contemporary Festival'에서는 각 요소의 장점들이 조화롭게 작용해 아티스트의 주제의식을 담아내기를 바라며, 베트남의 현대 예술의 지평이 넓어져 이 나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



© 손예운



I. 현지 동향

유형	공연	장르	현대무용
관련링크	https://hanoigravine.com/2018/08/contemporary-dance-behind-eye-haunting-lonely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 Behind the Eye 공연>

○ 내용: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는 지난 8월 19일 하노이오페라하우스에서 <Behind the eye>를 공연했다. 이는 유럽 벨기에의 세 드 라 베 발레단(Les Ballets C de la B)에서 활동 후 현재는 조안무가로 있으며 호치민·하노이 등지에서 현대무용을 가르치는 부이 응옥 판(Bùi Ngọc Quân) 안무가가 이 발레단과 새 컨템퍼러리 작품을 만든 것으로 발레무용수들의 현대적인 변신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 현지 동향 분석: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외국 문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베트남일지라도, 문화의 응집 결정체인 예술에는 아직 장벽이 높다. 하지만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단의 예술감독인 프란 리 리(Tran Ly Ly)는 우리의 눈동자 너머 알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미지의 영역을 표현했다고 말하며 베트남에서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대 예술형식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도를 감안하면 <Behind the eye>는 몹시 성공적이다. 뮤지션 프리 민(Tri Minh)이 무대의 한 구석에서 내내 디제잉을 하며 전자음악부터 클래식 피아노 선율까지 아울렀고, 공간 속에서 무대 연출이나 음악, 세트는 세련된 인상을 남긴다. 의상 중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 여자들이 주로 입는 전신 수트는 2018년판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같이 보였고, 1시간 동안 온몸을 뒤흔든 7명의 여성 무용수들에게 발레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신체로 깨끗한 구도나 군무, 몸의 선을 보여주기보다는 수많은 감정들을 온몸을 뒤틀며 표현하는 걱정의 소용돌이가 1시간 내내 지속되었다. 무대 뒤에 설치된 커다란 돌을 스크린 삼아 사람의 깜빡이는 눈동자를 구현한 모습은 뒤틀리는 무용수들의 신체에 이어 또다른 해체로 이어졌다. 처절하고 치열하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하고 끈질기게 표현했다.

작품이 끝나고 1시간 가량이나 이어진 아티스트 토크에서는 외국인, 현지인을 불문하고 열띤 토론과 질답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하노이오페라하우스에서 발레단이 이러한 아티스트 토크를 갖는 것조차 최초였다는데, 베트남 관객들은 수줍기보다는 무대 위에 앉아있는 아티스트와 소통에 대한 의지로 들쭉였다.

관객은 솔직했으나 아티스트는 주저했다. 몇몇 외국인들은 소품의 메타포, 결말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으나 질문의 포화상태인 안무가의 대답은 '열려있다' 라는 대답뿐이었다. 심지어 안무가의 옛 선생님이 일어난 자신의 제자가 남긴 짧은 답변에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며 대변하기도 한 만큼, 이 시간의 절반은 출연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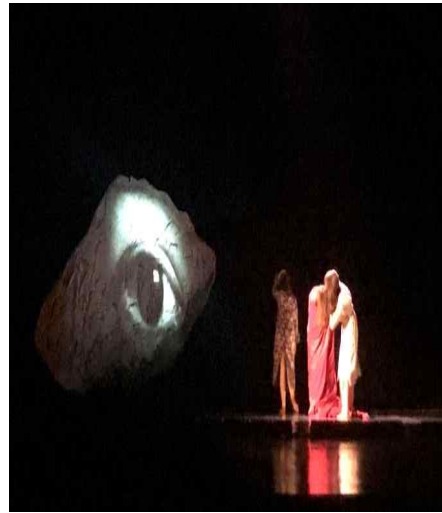
가까운 지인들의 격려와 축하, 개인적인 감상평으로 채워졌다. 아티스트들이 작업중 발견한 단서나 리서치의 흔적, 창작의 근원 등에 대한 갈증은 작품 속에서도, 밖에서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들의 'behind the thoughts'를 설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자 하는 데에 큰 격려를 보내고 싶다. 형식만 현대예술이 아닌 예술에 다가가는 마음까지 열리를 바라면서도, 사뭇 다른 사회체계에서 드러나는 무용예술의 면면은 현재 우리가 베트남 이웃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Behind the Eye

© VNOB



© 손예운

I. 현지 동향

유형	어플리케이션	장르	도시 예술, 공공 예술
관련링크	https://hanoigrapevine.com/2018/10/thin-air-2-opens-today		

○ 소개

'Into Thin Air2'는 민간 예술 그룹인 만지아트스페이스에 의해 기획된 공공 예술 프로젝트로서 2018년 10월 7일 공식 출시되었다. 이는 베트남의 알려진 예술 관련 공간(박물관, 갤러리 등)을 벗어나 일상적인 장소에서 공간을 이해하고 작품과 교감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다.

○ 지난 프로젝트

'Into Thin Air'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16년 4월 약 10일간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장소 특정 설치물, 대화가 가능한 비디오 작품 등 10가지 작품과 프로젝트들이 배치되어 당시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사냥'할 수 있도록 '보물 지도' 기능을 하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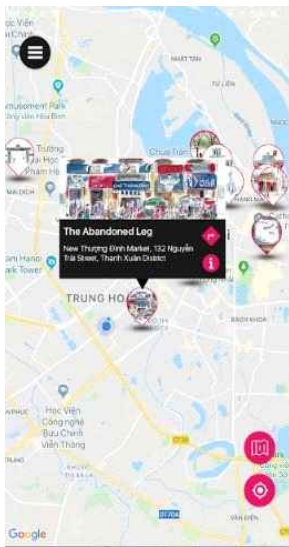
이 성공을 겪은 후 두 번째 프로젝트로 나온 이번 'Into Thin Air2'는 하노이 10개의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술 작품 시리즈를 담았고, 이 또한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의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 작품과 교감할 수 있다.

○ 의의

특정 장소는 역사와 기억과 더불어 개인적 및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예술 매개체다. 잊히기 쉬워도 창의적인 발상이 관객의 경험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에,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거리 예술' '장소 특정' 예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베트남에서는 장소 허가 등 문제로 구현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현지 예술 그룹인 만

지아트스페이스가 다양한 해외 파트너와 기술 파트너를 통해 이루어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기술 회사 ADT Creative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유네스코, 주베트남독일문화원, 주베트남네덜란드대사관의 장기적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 Into Thin Air2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 Into Thin Air2 로고

©만지아트스페이스 공식 페이스북

I. 현지 동향			
유형	축제	장르	공연예술
관련링크	https://e.vnexpress.net/news/travel-life/culture-arts/license-issues-led-to-quest-festival-cancellation-3844131.html		

2013년부터 이어온 하노이 퀘스트페스티벌, 정부의 공연 비허가로 끝내 취소

정부가 끝내 퀘스트 페스티벌의 공연 허가를 받아주지 않아 하노이의 가장 큰 음악페스티벌인 퀘스트 페스티벌(Quest Festival)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응웬 타이 빈 (Nguyen Thai Binh) 문화부 장관은 당국이 예상치 못하게(unexpectedly) 프로그램을 중단 시켰다고 말했다.

하노이 문화부는 7월에 이미 이 행사에 대한 공연 허가를 진행했지만 지난 9월 19일 하노이 서호에서 열린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마약 과다복용으로 의심되는 7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모든 음악 축제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보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민족 문화 관광 마을 (Vietnam Village for Ethnic Culture and Tourism Village)에서 각국의 예술가를 데려 오며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티켓을 판매하는 이 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해 정부는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40km나 떨어진 장소이며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없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퀘스트 페스티벌은 2013년 이후 점점 관객의 참석률과 티켓 판매율을 높이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CNN 및 Guardian과 같은 국제 언론 매체에 소개된 축제다.

I. 현지 동향

유형	아트 페어	장르	미술
관련링크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베트남의 현대미술단체 워크룸포(Work Room 4)에서 공개 현대미술작품 전시회 “Art For You”를 열었다. 이 행사는 베트남의 젊은 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대량 전시하면서 사람들과 나누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오픈 행사로 예술 카페이자 전시장인 만지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영국문화원을 비롯해 현지의 맥주양조회사, 음식점 등 현지의 다양한 후원을 받아 열린 예술 행사로 희소성과 개성 넘치는 현대 미술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진: 워크룸포 공식 홈페이지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단체명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NHÀ HÁT NHẠC VŨ KỊCH VIỆT NAM)		
유형	국립예술기관	장르	오페라, 발레
운영주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11 Ngõ Núi Trúc, Kim Mã, Ba Đình, Hà Nội	설립년도	1959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vnob.org		

기관 및 단체

○ 소개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 1959년 설립된 최초의 전문 오페라하우스다. 당시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및 스웨덴과 같은 문화 센터의 기금을 통해 은 국가와 문화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등장했다.

○ 특징

많은 베트남의 유명 안무가들과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 *불새*, *봄의 제전*,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라 실피드*, *백조의 호수*, *지젤* 등 세계적 레퍼토리를 올렸다. 발레단의 많은 젊은 예술가들은 호주, 프랑스, 스웨덴,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현대 발레의 새로운 경향과 스타일을 습득해 더욱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예술감독을 선임하여 클래식발레에서 벗어나 컨템퍼러리댄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레퍼토리를 구축하며 해외 기관과의 협업에 힘쓴다.

○ 예술감독 : 쩌란 리 리 Tran Ly Ly

- 현) 국내 우수 무용 작가 (베트남 정부 지정)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 예술감독

- 전) 2016 베트남 TV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스>, <The Remix>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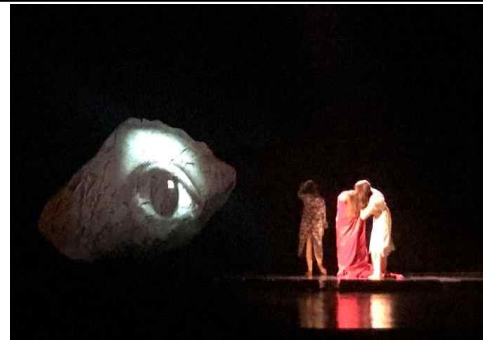
호치민무용전문대학교 부총장 역

베트남무용전문대학교 현대무용학과 교수 역임

베트남무용전문대학교 졸업

○ 단체 규모

- 오케스트라 50명
- 발레단 30명
- 오페라 20명



쯔란 리리 예술감독 © TV 프로그램 <댄싱 위드 더 스타스>

* TIP : 베트남국립오페라발레단은 새 예술감독을 필두로 역동적인 변화를 겪는중이다. 현재까지 클래식발레와 현대무용 모두 무대에 올려왔다. 하지만 발레의 발상지인 유럽이나 러시아의 체구와 실력과, 동양인의 그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개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더 발전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베트남에 체계적인 발레 교육 시스템이 전무해 클래식 발레를 따라가기 어렵기도 하다. 신임 예술감독이 쯔란 리리는 베트남 내에서 활발하게 컨템퍼러리 댄스를 선두하는 인물로 1996년 베트남국립무용학교 명예졸업 후 호주와 프랑스에서 활동 후 돌아와 베트남에 최초로 컨템퍼러리 댄스라는 장르를 소개했다. 각종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연예인 수준의 베트남 내 인지도를 얻으며 발레단의 입지를 굳혀가는 중이다. 최근 충남문화재단과 MOU업무계약 체결을 맺으며 한국과의 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관/단체명	베트남국립가무악단(Nhà hát Ca, Múa, Nhạc Việt Nam)		
유형	국립예술기관	장르	전통공연예술
운영주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8 Huỳnh Thúc Kháng, Thành Công, Ba Đình	설립년도	1951
기관현황			
홈페이지	www.facebook.com/NhaHatCaMuaNhacVietNam/ www.facebook.com/NhaHátÂuCơ		

**기관
및
단체**

○ 소개

전통 기반의 베트남국립가무악단은 1951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 기관이다. 베트남의 다양한 예술 활동 종류의 저변을 늘려나가는 데에 주력하는 단체로, 무용단, 악기단, 가악단으로 분류되어 있어 종합예술을 선보인다.

○ 단체 규모

- 음악단 30명
- 무용단 25명

-가악단 25명



© Nhà Hát Au Cơ 공식 페이스북

* TIP : 베트남 내 여러 국공립 기관중에서 무용, 음악, 노래의 예술가들이 전통적 형식을 유지하며 모여있는 곳이다. 완전히 새로운 예술 형식을 선도하는 것도,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의 전통공연예술 규칙과 형태를 유지하는 내에서 약간의 변주를 시도하는 편이며 이 장점으로 나라의 행사나 해외 인사 방문시 가장 많이 공연하는 단체다.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VCCA		
유형	갤러리	장르	미술
운영주체	Vin Group		
소재지	하노이	설립년도	2017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vccavietnam.com/		

- 메일 : v.info-vcca@vincom.com.vn
- 전화 : 091 754 02 37
- 주소 : B1-R3 Floor, Royal City 72A Nguyen Trai Street, Thanh Xuan District

○ 소개

Vincom Center for Contemporary Art (VCCA)는 베트남 최대 규모인 Vingroup JSC가 후원하는 비영리 예술 센터다. 2017년 6월 베트남 현대 미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노이의 복합쇼핑센터인 로얄시티 빈컴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해 총 면적이 약 4,000m2나 되는 대규모 놀이터이자 베트남의 유일무이한 독특한 아트센터다.

○ 목표

VCCA는 베트남 전통 미술을 보존하고, 갤러리아자 박물관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측면에서 가치를 두는 것에 중점을 둔다. 또 현대 예술 작품과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해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예술과 거리가 먼 일반 베트남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가 베트남 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VCCA 위원단은 베트남 현대 미술을 국제 시장으로 끌어 들이고 미래의 가장 유망한 현대 미술 센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밝혔다.

○ 특징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운영으로 최신 시스템을 갖춰 비디오 갤러리, 교육 워크숍, 미술 수업, 도서관 등을 운영한다. 1년 4개의 기획 전시로 운영하고 시즌마다 다양

한 주제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며 각 3개월씩 지속된다.



▲ VCCA 공식 로고 및 넓은 내부 ©VCCA 공식 페이스북

* TIP :

베트남에서 최초로 대기업이 설립한 예술 센터로서 베트남의 현대 예술 지형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초이자 비영리 단체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베트남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특이하게 일본인 예술 감독이 지휘를 맡고 있으며, 한국의 시각 예술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기획 전시에도 관심이 있다.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HBSO(Ho Chi Minh City Ballet and Symphony Orchestra)		
유형	시립 단체	장르	발레, 오케스트라
운영주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호치민	설립년도	1994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hbso.org.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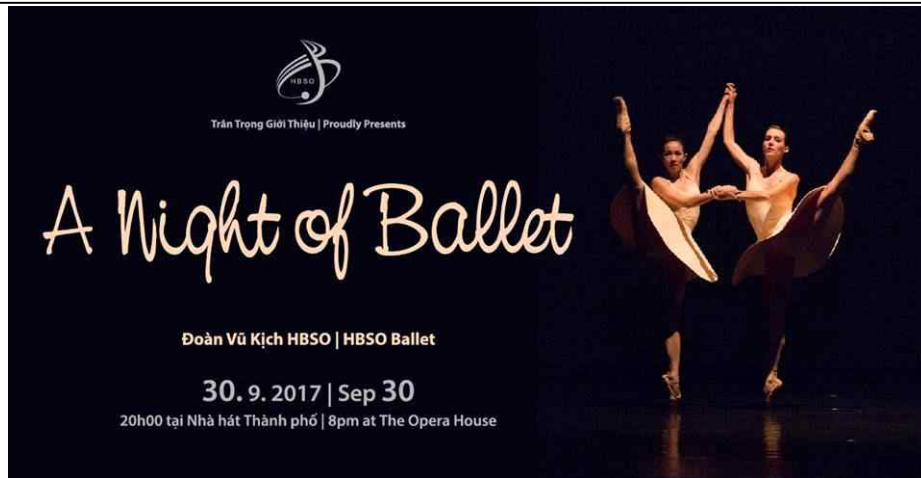
- 메일 : info@hbso.org.vn
- 전화 : 08 38237295
- 주소 : Opera House, 7 Lam Son Square, Dist. 1, Ho Chi Minh City

○ 소개 :

HBSO(호치민 발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호치민인민위원회에 의해 1994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호치민 심포니 챔버 오케스트라였으나, 발레단이 유입되면서 명칭이 현재와 같이 이어져오고 있다. 세계 고전 음악 작품, 그리고 베트남 전통과 현대 작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앙상블, 솔로, 오페라 및 발레 단체가 있으며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을 한다.

○ 목표 :

HBSO는 호치민시의 학술 기관 등에서 고유의 문화성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발전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클래식 예술에 대한 호치민 관객의 요구와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또한 국제 협력 및 문화 교류를 강화한다.



▲ 발레 공연 포스터(위) 오페라 공연 사진(아래) ©HBSO 공식 홈페이지

* TIP :

오케스트라와 발레단 통틀어 한 달에 많게 5번까지 자체 공연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고전부터 현대 작품까지 골고루 공연을 하며, 해외 협업에도 활발한 편이다.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아라베스크 무용단		
유형	민간단체	장르	발레, 현대무용
운영주체	응우옌 탄 록 (Nguyễn Tấn Lộc)		
소재지	호치민	설립년도	2010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arabesque.official/		

- 메일 : tanlocdance@gmail.com
- 전화 : 08 38237295
- 주소 : 40/46 Trần Quang Diệu, phường 14, quận 3, HCM

○ 소개 :

호치민의 독립 현대 무용단인 아라베스크 무용단은 기존의 발레와 현대무용을 바탕으로

로 베트남의 색채를 지닌 새로운 움직임 어휘로 작품 활동을 해나가는 민간단체다. 도쿄의 후지 사토 발레단으로 활동했던 응우옌 탄 록을 필두로 2010년부터 자신만의 작품을 축제 및 무대에 올리면서 베트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순수 예술 공연 단체다.

○ 목표 :

아라베스크 무용단은 베트남의 전통 민속 무용에서부터 베트남 문화의 일상적 관계를 현대적인 움직임으로 풀어가면서 세계의 컨템퍼러리 무용 흐름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뉘앙스를 탐구하면서, 젊은 창작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표현으로 베트남의 역사, 전통, 및 미학을 나타내고자 한다.



▲아라베스크무용단 로고(위), 베트남 색채가 담긴 발레(아래)
©아라베스크무용단 공식 페이스북

* TIP :

일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무용단의 대표 응우옌 탄 록은, 이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도 국제 축제 등에 초청 받고 공연하며 자신만의 네트워크와 입지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국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라베스크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에 개방되면서 국제적 고립을 돌파함에 따라 문화적으로도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내놓을 플랫폼을 찾고 있는 것이다.

클래식 발레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만들지만, 베트남 54개 소수 민족의 전통춤을 세련되게 녹여낼 수 있는 작업에 주로 몰두하며 독자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국의 대구시립무용단과 2014년 호치민국제무용페스티벌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오다가, 호치민오페라하우스의 공식 초청으로 2018년 10월 컬래버레이션 작품을 올렸다. 현재 한국 임선영 현대무용가와 듀엣을 작업중이며, 서울 성균소극장에서 2018년 12월

말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동양적인 발레 스타일로 한국 KBS뉴스에 소개된 바 있다.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봉센 극단 Bongsen Theater		
유형	시립 단체	장르	무용
운영주체	호치민 문화체육관광부		
소재지	호치민	설립년도	1963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nhahatbongsen.vn/		

- 메일 : cmnbs.svhtt@tphcm.gov.vn, tanlocdance@gmail.com
- 전화 : +84 28 3823 7186
- 주소 : 108 Hai Bà Trưng, Phường 6, Quận 3, Hồ Chí Minh

○ 소개 :

봉센 전통음악 및 무용 극단은 호치민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예술 단체다. 1963년 설립되어 지난 55년간 다양하고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나라를 대표해 세계 50개국 이상의 예술 단체와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했으며 베트남 전통 음악과 춤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나는 레퍼토리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거대한 연꽃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무용수를 보유하고 훈련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다.

○ 목표 :

봉센 극단은 훌륭한 예술가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는 중요 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 음악을 공연하는 것 외에도 직접 연출한 작품을 통해 전통 예술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쓴다. 현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성해 화려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베트남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봉센극단 로고(왼), 연꽃을 뜻하는 '봉센'이 담긴 공연사진(오른)
- ©봉센극단 공식 홈페이지

* TIP : 이 단체는 전통 음악과 무용이 기반이지만 베트남 전통 예술의 정체성이나 깊이,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기 보다는 전통적 형식을 차용해 현대인들이 관람하기에 즐겁고 오락적인 다소 화려한 퍼포먼스에 치중되어 있다. 움직임이나 악기, 의상 역시 서양의 것과 섞여있어 야외 축제나 큰 무대에서 공연 시 강점이 있다.

공간명	AgoHub		
유형	Co-working hub	장르	건축, 예술
운영주체	Nguyen Tuan Anh		
소재지	No. 12 Hoa Ma Street Pham Dinh Ho Ward, Hai Ba Trung Distr.	설립년도	2017
공간현황			
홈페이지	www.agohub.com www.facebookcom/agohub		

공간

○ 소개

Agohub는 베트남 최초의 건축가가 디자인하고 설립한 공간으로서, 베트남의 건축과 예술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목적지로 나아간다. 이 공간은 작업실, 회의실, 세미나, 워크숍, 전시 등 서로 상호적인 지원으로 통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 특징

건축가인 Nguyen Tuan Anh이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한 건물로 친환경적·창의적 공간을 제공한다. 현대적 디자인과 장비로 건축이나 예술 관련 영화 상영회, 세미나, 토크쇼, 워크숍 등 예술 관련 행사가 자주 열린다. 윗층에는 예술가의 작업실이나 회사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공동사무실이 있는 등 유연한 형태를 가진다.

○ 층별 소개

- 1층: 갤러리, 카페테리아
- 2층: 공동사무실(디자인, 컨설팅, 건축사 상주), 스튜디오
- 3층: 건축예술 라이브러리
- 4층: 스튜디오, 예술 작업실, 전시실



2층 스튜디오 © Agohub



전시 <Muse>가 진행중인 1층 © 손예운



2층에서 내려본 Agohub © Agohub

* TIP : 3층 라이브러리는 건축, 예술, 디자인, 사진, 문화에 관한 3000권 이상의 책이 있다.

공간명	DEN		
유형	라이브 공연장	장르	음악, 락, 현대음악
운영주체	DEN		
소재지	하노이	설립년도	2017
공간현황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eNBarAndCafe/		

- 메일 : denyenphu@gmail.com
- 전화 : +84 28 3823 7186
- 주소 : 49 Làng Yên Phụ, Han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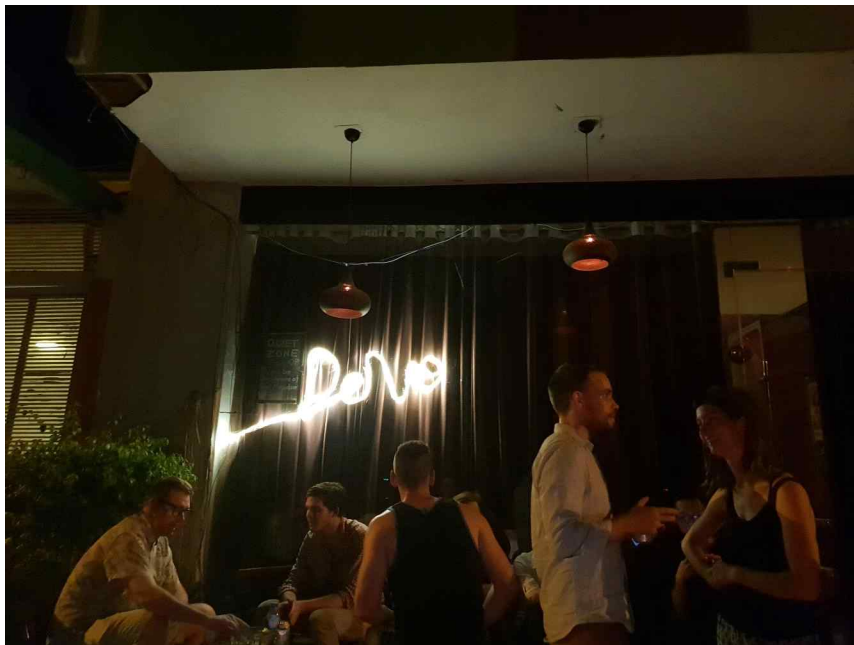
○ 소개 : 덴(Den)은 2017년 설립된 라이브 공연 공간으로 요일별로 기획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하노이 거주인들의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킨다. 초청되는 뮤지션들은 대체로 하노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혹은 베트남 뮤지션들이다.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1층, 2층에 나뉘어져 있으며 2층 공연 공간은 서호를 등지고 있다. 행사 개최 외에도 공간 대여, 녹음 스튜디오, 악기 장비 렌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간



DEN
DRINKS, MUSIC & FOOD

◀ Den 로고 ©Den 공식 페이스북



▶ Den 외부

©손예운



▲ Den 내부 공연장

©손예운

* TIP : 하노이 예술가들의 성지였던 X9, 그 뒤에 생긴 Hanoi Creative City도 오래가지 못하고 연이어 폐쇄 후 아직까지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다방면 장르 아티스트들의 집결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이곳 DEN 이다.

축제/행사명	호이안 도자기 축제		
유형	축제	장르	도예
운영주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시기	2018.8.19-24	시작년도	2018
개최도시	호이안		
참가규모			
홈페이지	http://vietnamtourism.gov.vn/english/index.php/items/13047		


○ 소개:

호이안 도자기 축제는 “뜨거운 도자기 페스티벌 - 호이안”이라는 주제로 공예가들이 장인들의 경험을 전수하고 전통도자기를 소개하는 자리다. 이는 올해 첫 진행된 축제에 앞으로 호이안의 도자기마을의 정통을 보존하고 또 관광사업으로서 발전시켜 관광객에게 호이안 도자기를 소개하기 위한다. 올해 3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도예품 전시와 더불어 전통 의상 패션쇼, 아이들을 위한 그림 워크숍, 그리고 호이안의 도예술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축제
및
행사**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p>* TIP : 호이안시는 베트남 중부 광남성에 위치한 도시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아름다운 도시로, 도자기 축제 외에도 다양한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을 시작으로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호이안 코리아 페스티벌'도 진행중이다.</p>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베트남 전통 의상 공연 및 ASEAN 예술 교류 공연	
	유형	축제	장르 도예
	운영주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시기	2018.8.28	시작년도 2018
	개최도시	Công Nhân 극장 (42 Tràng Tiền, Hoàn Kiếm, Hà Nội)	
	참가규모		
	홈페이지	http://www.vietnamtourism.com/index.php/news/items/21436	
	<p>○ 소개</p> <p>중앙 부처와 대사관, 대변인, 외국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 비영리기구 등 참여한 이 자리는 ASEAN 각국의 문화적 색채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51주년을 기념하며, 베트남은 이 연합이 가입한지 23년째다. 이 프로그램은 아세안 공동체 관계에 대한 선전과 홍보를 강화했으며, ASEAN의 전통 의상과 ASEAN 국가의 모티프와 풍경이 담긴 40개의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ao dai)를 보여주는 것이었다.</p>		
 <p>© dangcongsan.vn</p>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Crossing Over Festival	
	유형	Performing Arts	장르 Music
	운영주체	Kerman 프랑스 무용단, 주베트남프랑스문화원	
	개최시기	2018. 4	시작년도 2017
	개최도시	호치민	
	참가규모		
	홈페이지	https://www.crossingover.com/	
	<p>주프랑스문화원과 Crossing Over Arts Festival (KOAF)는 호치민의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과 작품간 상호 교감을 유도하는 다원 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컨템퍼러리 공연예술 축제다.</p> <p>2016년 첫 시작으로부터 매년 "주택, 도시 및 건축", 혹은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약 일주일간 호치민에서 열린다. 프로그램마다 퍼포머와 시각예술 작품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예술과 예술 간 시너지를 공개적으로 관객과 나누며 예술과 관객이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한다.</p> <p>* TIP : 하노이에 "Europe Meets Asia"가 있다면, 호치민에는 "Crossing Over Festival"이 있다. 독일문화원이 주최하는 "Europe Meets Asia" 공연예술 축제는 2013년 시작해</p>		

	<p>총 5회간 연이어 공연했고, 올해인 2018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9년에 베트남국립 오페라발레단과 유럽의 안무가와 협동 공연을 연다고 하는데, 한 해 쉬어서인지 혹은 국립기관과의 대규모 작업에 나서서인지, 공연예술계 예술가들의 관심은 Crossing Over Festival에 더 많이 쏠려있다.</p>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Ca Tru Festival		
	유형	축제	장르	전통 공연예술
	운영주체	베트남 문화부		
	개최시기	2018	시작년도	2008
	개최도시	전국, 해마다 다름		
	참가규모			
	홈페이지	https://vietnamnews.vn/life-style/468487/ha-tinh-hosts-fourth-national-ca-tru-festival.html#J0I7aHik8Ylg9Vgc.97		
	<p>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틴(Hà Tĩnh) 지방의 전국의 카쭈(ca trù) 단체들이 참여하는 제4회 전국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는 문화체육부와 하틴인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까쭈는 11세기 베트남 북부의 전통 시 형식으로 가사를 쓴 예술형태이며 이를 악기 연주자와 가수과 함께 공연형식으로 노래한다. 2009년 유네스코 지정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이번 축제에서는 한 명의 가수와 두 명의 뮤지션을 포함한 까쭈 단체들이 45~90분까지 길이의 작품을 공연한다. 일반 공연 뿐만 아니라 경연대회 형식으로도 열려 다양하게 까쭈를 즐길 수 있다.</p> <p>2008년 제1회 까쭈 축제에 참가했던 원로 악사들이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젊은 까쭈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p>			

인물	인물명	미즈키 엔도 (Mizuki Endo)	소속	VCCA
	장르	현대 미술	연락처	v.mizuki@vincom.com.vn
	주요 이력	<p>○ 현 VCCA(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 예술 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 Playroom 설립 (미토) -2005 Future Propects Art Space 설립 (마닐라) -2005 제3회 Lorenzo Bonaldi 예술상 수상 (베르가모) -2004 Art Space Tetra 설립 (후쿠오카) -2014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Kunisaki Art Project 감독(일본 오이타) -2011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 "perfect moment" 초청큐레이터 -2009 후쿠오카 아시안 아트 트리엔날레 협업 큐레이터 -2007 싱가포르 비엔날레 네트워크 큐레이터 		
	<p>빈그룹의 사회 예술 공헌,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 "베트남의 현대 예술은 월드 클래스에 제격" "일본, 한국이 걸어간 길 쫓아갈 필요 없어" (2018.10.5.)</p>			
				
	<p>미즈키 엔도 ©VCCA 제공</p>			
	<p>-2017년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이하 VCCA) 개관 후 계획대로 1년간 4개 기획 전시를 선보였다. 현재까지 걸어온 발자국을 되돌아본다면 정확히 1년 3개월이다. 개관 준비 기간이 몹시 짧았던 기억이 난다. 특히 VCCA와 같은 기관은 베트남 전례에 없다. 대기업 소속이면서 비영리로 운영되고, 많은 일반 대중이</p>			

찾는 대형 쇼핑몰 안에 위치한, 베트남에 이렇게 큰 규모의 컨템퍼러리 센터라는 개념은 최초이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나가야 했기에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빈그룹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만의 길을 나아가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껏 해온 기획전시들 또한 몹시 만족하는 편이다.

-VCCA의 예술 감독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왔나

간단히 말하면 VCCA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술적인 일은 내가 맡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첫 개관과 진행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여기에 아무도 '컨템퍼러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다.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우리 VCCA에서 일하는 베트남 직원들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컨템퍼러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부터 시작했다. 또한 예술 개념상 컨템퍼러리를 새롭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대 미술관이 일궈내는 시스템이나 기획 전시실 배치, 작품에 대한 설명문 뽑는 것, 스포트라이트 놓는 법 까지 모든 것을 전수중이라는 점에 일이 많다. 그렇지만 베트남에 현대 미술관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선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빈그룹과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가

빈그룹에서 초청받았다. 아무래도 내가 전직 큐레이터고, 여러 국제 축제 및 전시 기획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나는 아시아쪽 활동에 두드러졌다. 그렇게 디렉터리 개관하던 때에 처음 베트남에 오게 되었다.

-일본인 예술 감독으로서 베트남의 컨템퍼러리 트렌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내가 겪은 일본은 90년대 말 처음 현대 예술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 당시 현대미술관, 현대미술 소개 시스템, 현대미술 접근하는 방식까지 모두 새롭게 유입되면서 일본 미술계는 정말 왕성했다. 처음 일본 현대미술관 중 하나인 '모리미술관'이 개관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전시의 주제가 '행복' 이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일본인들이 현대 예술을 처음 접하던 때 쉽고 즐겁게 관객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다.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대 예술은 새로운 흐름을 걷고 있다.

이 시점에서, 베트남이 꼭 모든 아시아의 나라들이 겪은 예술 사조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이들은 모든 사조를 경총 뛰어 넘고 단번에 컨템퍼러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 겪은 경험을 꼭 넘어야할 이유가 있나

일반 산업도 비슷하다. 빈그룹이 최근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본의 혼다 혹은 한국의 현대차와 달리 곧바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다. 남들이 밟아온 과정을 굳이 따라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의 환경피해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고 새로운 한 발자국을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서양 문물을 수용하던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것은 잊은 채 너무 서양의 것만 무분별하게 수입해 현재 반성하고 후회하는 면이 있다. 일본이나 한국을 통해 예술 정책 등의 문제점들을 읽어내고 꼭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젊은 베트남에 훨씬 더 컨템퍼러리 예술이 발전할 기회가 무궁무진한 것 같다.

-사람들이 정한 틀에서 뛰쳐나가려는 현대예술의 특징 면에선 유리할 수 있겠다

세계는 또 새로운 컨템퍼러리를 찾아 헤매고 있고, 자본주의와 뒤섞인 현대예술에 대해 실증을 느낀다. 개방하기 시작한 베트남 아티스트들이 그들 고유의 현대 예술을 가지고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순간 '월드 클래스'와 '베트남 클래스'의 수준이 딱 맞아떨어지는 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아트센터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

베트남 국민들에게 현대예술로서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다. 이 외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젊은 베트남의 작가들을 후원하는 것이 있다. 사소하지만 그들이 작품 카탈로그 제작부터 영문 번역, 그리고 기관에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까지 부족한 실태다. 이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해외 협업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빈컴컨템퍼러리아트센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이들이 좋은 영향을 준다. 베트남 정부도, 빈그룹도, 예술 관계자들도 모두 힘을 실어주니 나는 의견들을 수렴해 베트남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술 감독이자 큐레이터로서 정진하고자 한다.



▲ VCCA 입구에서 미즈키 엔도

© 손예운